신당-민주 통합, 이번주가 고비

민주 박상천 대표 "설 연휴 이전에 끝내자"

양측 통합에 공감…호남의원들 조정이 관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협상이 이번 주 내에 가부간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신당과의 통합협상을 제안하면서 시한을 설연휴 이전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양당의 통합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양당의 통합은 또다시 물 건너갈 전망이다.

28일 신당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은 그동안 수차례 비공식 물밑접촉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설 이전 통합협상 완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을 해야 한나라당을 견제할 야당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설 이전에 통합 협상의 성과를 내야만 총선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신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더 이상 줄다리기만 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내에 통합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설 이전까지는 가시적인 통합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이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총선 공천을 둘러싼 지분 문제는 여전히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신당은 '지분 문제를 배제한 조건없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분 문제가 불거진다면 민주당과의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것이다.

지분이 담보된 통합은 한나라당으로부터 '호남당'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 및 동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선 공천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지역구가 겹치는 일부 호남권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실제로 지분 문제는 통합의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경쟁력 있는 예비후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신당 측이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적절한 정치적 배려만 해준다면 통합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천 지분을 요구한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신당 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통합은 총선 지분 및 호남지역 양당 예비 후보들의 공천 조정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신당 의원총회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장관〉 〈장병완 장관〉

이용섭 건교·장병완 예산처

"4·9 총선 출마" 사의

이용섭 건설교통,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동료 각료들에게 인사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장도에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용섭 장관은 광주 지역, 장병완 장관은 광주 북구갑에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주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2월 1일을 전후해서 공식적으로 사표가 처리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공직사 사퇴 시한은 내달 9일이지만 내주가 설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사표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날 국무회의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孫-鄭 갈라서나' 전운 고조

정동영측 일각 '제 3지대론' 솔솔

손학규 "대표로서 기득권 연연 안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전·현직 대주주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손학규 대표 간의 갈등 국면이 심상치 않다.

정 전 장관이 지난 주말 당 내외 인사들과 계룡산 등반에 나서며 사실상 '실력행사'에 나선데 대해 손 대표가 '편한 길 가면서 국민에게 버림받는 길은 피해야 한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폭발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신당의 분당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을 기준으로 공천 과정에서 공정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장 당내 분란이 없도록 하자며 편한 길을 가면서 종국에 국민에게 버림받는 길은 피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 대표 자리를 기득권의 기회로 삼거나 정치적 세를 불리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부터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호남지역 공천 쇄신' 언급에 대한 당내 반발 조짐이 일고 있고, 정동영 계 인사들의 '제3지대 신당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천 쇄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의 정면돌파 선언에 정 전 장관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물밑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계룡산 산행으로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의 움직임을 보인 정 전 장관 측은 제3지대 신당론을 흘리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산행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대로의 정체성과 방향성으로는 안 된다"며 현 체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고, '신당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며 제3지대 신당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표 선출 과정에서 경선파였던 정대철 고문과 김한길 의원 등과의 결합 가능성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합류 시나리오 등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최근 정 고문, 김 의원 등과 한차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 대표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감지된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지지조직인 '정통들'과 이번 주말 산행에 나서기로 하는 등 측근들과 매주 산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 전 장관 측 핵심 인사는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설 연휴가 지나면 뭔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정동영계 일각의 신당 창당 카드가 총선에서 일정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압박용'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을 탈당,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대선 후보로까지 나섰던 정 전 장관이 또다시 분당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신당·민주 통합 빠를수록 좋아"

4·9 총선 현장

○…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운태 전 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강 전 장관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양당의 모든 기득권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총선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양 당 뿐만아니라 불안한 국정운영을 걱정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

양성철씨 "담양·곡성·구례 출마 검토"

○…양성철(69) 전 주미대사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큰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

곡성 출신으로 주미 대사 등을 역임하고 15대 국회에서 곡성·구례 지역구 의원을 지낸 양 전 대사는 "그동안 맺어 온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낙후한 담양·곡성·구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

김영룡 국방차관, 내달 4일께 사표 낼듯

○…김영룡 국방부 차관이 제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달 4일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

국방부 한 소식통은 "김 차관은 고향인 전남 화순이나 광주 남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설 연휴 직전 사표를 내고 선거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언.

오형근 "홍업·현철씨 총선 출마 안된다"

○…오형근 북구 갑 예비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업씨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에 대해 '반성과 참회가 없다'며 총선 불출마를 촉구.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이기도 한 오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전직 두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국익을 저해했으면서도, 사면 복권된 것만을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무안과 거제에 각각 출마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출마를 통해 백의종군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

정재훈 동아병원장 '인술 행보' 가속화

○…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재훈 동아병원 원장이 '동아 사랑모아 봉사단'소속 회원 30여명과 함께 남구 진월동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20여명의 장애인들과 즐거운 여가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함께하는 등 따뜻한 인술 행보를 계속.

정 예비후보는 "봉사활동은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무엇이 진정으로 남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장홍호씨 광주 서구 갑 출마 선언

○…장홍호 전 민주당 서구 을 위원장이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청와대 민정행정관을 지내고 국제자동차 경주대회(F 1) 전남지역 유치를 위해 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광주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피력.

이윤정 "한나라 독주 막겠다" 남구 출마

○…이윤정 한전 KDN 감사는 28일 광주 남구 지역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돌입.

이 감사는 "당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인적 쇄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유능한 정치 신인을 발굴, 영입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입성, 여당으로 자리잡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